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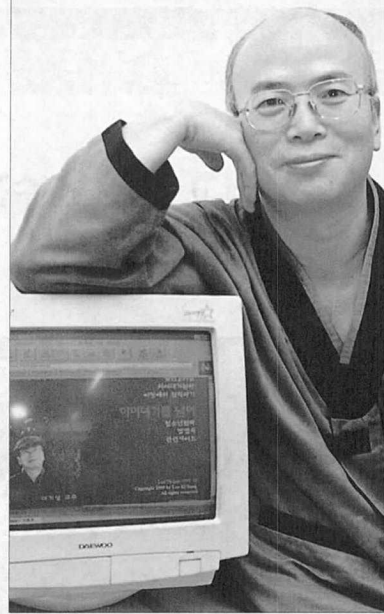
인터넷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철학

홈페이지에 강의노트 공개한 이기상 교수

통신수단의 발달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많아졌지만, 자신의 정보와 노하우를 섣뚱 나누기는 어렵다. 폐쇄적인 학계풍토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www.heidegger.pe.kr)를 개설해 자신의 강의와 모든 자료를 공개한 이기상 교수(52, 외국어대 철학과)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일반인들, 특히 학생들이 점점 철학에 관심을 잃어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접속해서 철학을 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철학의 전도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다. 홈페이지에는 해당학기의 모든 강의계획서와 강의노트가 공개되며, 학생들의 보고서도 공개된다. 그밖에 이교수의 전공인 ‘하이데거 철학’, 한국 중심적인 철학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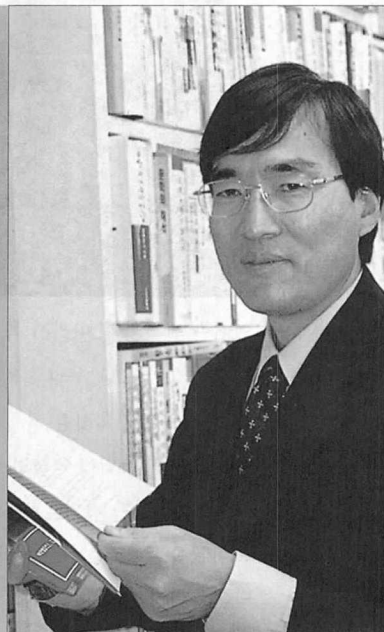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폭제가 된 독서토론회

‘영광독서연구회’ 이끄는 남송우 교수

막연하게 강연이나 강평을 열어 사람을 모은다고 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는 없다.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누구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부산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부경대 국문과 남송우 교수(46)가 그 성공적인 전범을 보여준다.

“91년 비평전문지 《오늘의 문예비평》을 창간한 뒤 대중성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대중과 직접 만나는 창구로 독서토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교수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먼저 작품을 읽고 문건을 만든 다음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했다. 장소는 영광도서 김윤환 대표가 기꺼이 서점 한켠을 내줬다. 그렇게 ‘영광독서연구회’가 결성됐지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오늘에 되살리는 옛책의 숨결

옛책 목록 《불암통신》 발행하는 오영식씨

옛책목록이 활발하게 공개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수집가의 목록을 들춰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옛책시장 자체가 알음알음으로 거래되는 데다 책을 사모으면서도 목록을 작성하는 수고를 마다하는 수집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책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오영식씨(46, 보성고 교사)가 기간별·주제별로 소장도서목록을 작성해 수록한 《불암통신》을 벌써 10년째 자비로 간행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최근 발간한 《불암통신》 제7호 머리말에는 “그 목차를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서슴없이 복사를 요청하기 바란다”며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제발이지 유용한 통신이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이용 요청을 고대한다”고 밝혀뒀다.

“우리 옛책시장은 다소 폐쇄적인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체가 옛책을 일괄구입하는 일이 많은데, 아예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비로소 옛책의 가치가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철학을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보는 공유하면
할수록 가치가
더 커집니다.”**

색해 보는 ‘이땅에서 철학하기’, 새로운 개척분야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철학’ 코너가 마련돼 있다.

원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건너간 이교수는 우리에게 맞는 사유방법을 찾기 위해 동양에 좀더 열려있는 하이데거를 공부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의 관심은 우리 나름대로의 철학하기. 그는 “우리의 철학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삶의 문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라며 ‘우리 말로 철학하기’를 강조한다.

또한 그는 청소년 철학에 관심이 많다. “우리는 철학교육이 너무 늦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철학자가 없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철학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철학적 관심을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의 부재가 안타깝다는 것이다. 그래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을 남기고 나가는 청소년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기쁘다.

이번에 하이데거 사상강좌 시리즈의 하나인 《존재의 바람, 사람의 길》(철학과현실사)을 펴낸 이교수는 철학이론의 밑바탕이 될 철학개념사전과 우리의 철학이 담긴 철학개설서를 펴내는 것이 평생의 꿈이다.

— 김정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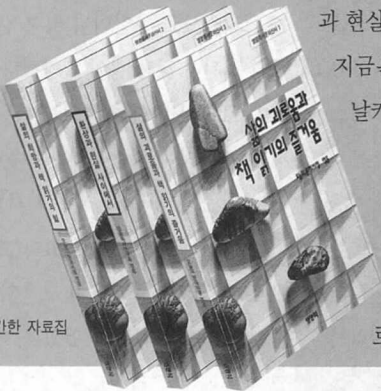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나서야 합니다.
지식인은 지역으로부터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을 꾸리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값아야죠.”**

“토론문화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시작한 만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엉뚱한 질문이 터져나오곤 했죠. 하지만 횡수를 거듭할수록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93년부터 시작한 토론회는 벌써 60회를 넘겼다. 참여 인원도 회당 150여명이 넘는다. 마침내 지역문화의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다.

토론회는 토론으로 끝나지 않았다. 《삶의 괴로움과 책 읽기의 즐거움》 《삶의 희망과 책 읽기의 힘》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영광북) 등의 자료집을 발간해 좀더 내실 있는 토론회로 가꾸고 있다. 지금은 토론회에 참여하는 작가들 사이에서 “거기 가면 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이 넘니들고 있다. 소문을 들은 다른 지역 문화인들의 내방도 잦아졌다.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나서야 합니다. 지식인은 지역으로부터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을 꾸리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값아야죠.”

독서토론회를 통해 지역문화를 가꾸는 남송우 교수와 그 동료들에게서 새로운 의미의 ‘브나로드 운동’을 엿볼 수 있었다. — 부산·오원진 기자



영광독서토론회에서 발간한 자료집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비로소 옛책의 가치가
생깁니다. 헌책 역시
문화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죠.
헌 책들이 진짜
가치있으려면
말입니다.”**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88년 ‘올해의 모범장서사’로 뽑힌 오씨가 헌책방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동국대에 다니던 학생시절. 민속학에 대한 관심이 그를 헌책방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수집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옛책시장의 문제점도 많이 느끼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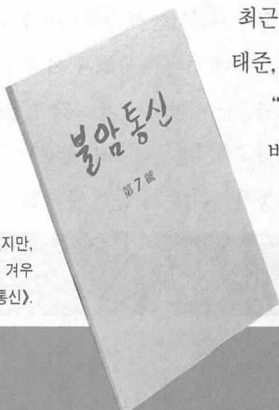
“최근에는 일본인들이 우리 옛책을 모두 사가는가 하면, 옛책을 마치 골동품처럼 취급해 값이 터무니없이 오르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뒤에 크게 후회할 일들이죠.”

최근 오씨의 관심사가 근대문학가들의 책으로 좁혀지면서 해방공간에 주목하게 됐다. 국학자 김태준, 문학평론가 김영건 등 옛책으로만 남고 그 이름은 사라진 인물들을 알게 된 것이다.

“아까운 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들의 전집을 묶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잊혀진 그들의 생애와 학문이 바로 옛책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오씨의 옛책들이 아직도 새책처럼 뽀뽀하게 살아 있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 김연수 기자



해마다 한권씩 낼 생각이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제 겨우 제7호를 펴낸 《불암동신》.